

캄보디아에 우물 천개 더

지구촌공생회, 초등학교 2곳 설립 등 사업 방향 발표

지구촌공생회는 2012년까지 캄보디아에 우물 1000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캄보디아에 따개우 주의 프로베양 프라우·정곳 2곳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율주)는 4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 식수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20~26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율주 스님과 사무차장 화평 스님 등이 현지 정부의 사업보고를 받고 추진 사업 등을 조율한 결과이다.

새로 설립되는 초등학교 2곳은 2010년 11월 완공·개교한다. 프로베양 프라우에 지어지는 학교는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의 지원을 받아 '금산초등학교'라는 교명으로 개교한다. 금산사는 금산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1억3000만원을 지구촌공생회에 지원했다. 정곳의 초등학교 건립기금은 한 재미교포의 유지에 따라 유가족이 1억원을 후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학교 설립과 책상, 의자, 책, 교사 채용 등의 인프라 구축을 돕고, 운영은 캄보디아 정부가 맡는다.

2010년 1월까지 캄보디아에 1000개의 우물을 지원했던 지구촌공생회는 2012년까지 캄보디아 지역에 우물 1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기존 우물 관리와 위생 교육도 진행한다. 지구촌공생회 김규환 홍보팀장은 "2004년부터 만들어진 우물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 우물관리후원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현재 유지권 2곳, 초등학교 2곳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모두 부처로 태어납시다

조계종 법전 종정·진각종 도훈 총인 봉축법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4월 29일 봉축법어에서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의 여래로 태어나 해탈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이라며 "무명 속에 부처를 빛어내는 밝은 길이 있고 번뇌 가운데 열매입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다. 눈 앞의 모든 생명이 법신의 구현체요, 여러분이 불조대기를 구족한 미륵의 현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본래 범부도 성인

도 아니고 이롭도 없었으나 어둠에 미혹해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됐으니 오늘은 열매입에서 벗어나 무위진인을 이룩하여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나자"고 당부했다.

같은 날 진각종도 총인 도훈 정사와 통리원장 혜정정사의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도훈 정사는 법어에서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자등명과 범등명을 밝히는 수행의 주인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중생이 번뇌의 어리석음을 벗고 불자불행(佛作佛行)과 무량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진각종 총인 도훈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행의 두터운 신행을 실천하면 이 세상은 곧 불국정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사는 "여실지견의 등불을 밝혀서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지혜·자비·용맹을 실천해 부처님 은혜와 사대은혜에 보답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혜정 정사는 봉축법어에서 "지혜·자비·용맹의 마음가짐은 자

신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근본이자 인류 미래를 이끌 희망찬 기운이다. 이 기운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이 기운을 내어 쓰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체중생의 삶이 지혜로운 행동과 바른말, 진실한 생각으로 넘쳐 복과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곁에 빛으로 오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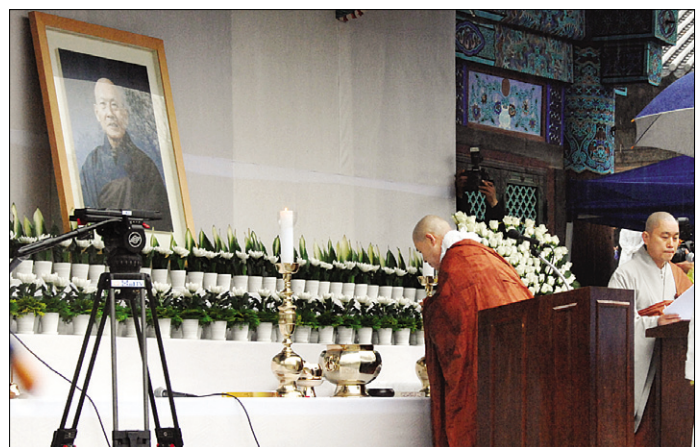
법정 스님 49재 송광사에서... 유골 불일암 후박나무에 수목장

무소유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안겨준 법정 스님의 49재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다.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4월 28일 봉행된 스님의 49재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회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손학규 민주당 前 대표, 정동영·박주선 민주당 의원 등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10시 사시예불과 명종 5타로 시작했다. 이어 길상사 합창단의 삼귀의, 원명 스님(조계종 어장)의 법요, 헌향, 헌다, 대종삼배, 추모 입장 및 법정 스님 영상법문, 법문, 정가, 헌화, 인사말, 사홍서원이 진행됐다.

지관 스님은 법문에서 "법정 스님은 79년 전에 육신이라는 차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셨다.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원력으로 살았던 법정 스님은 육신의 차를 버리고 열반락에 드셨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 세상을 사는 중생이 법정 스님의 원력을 잇을 수가 없어, 49일이 지나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중생들에게 정신적 지도를 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 49재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 등 5000여 사부대중은 법문에서도 헌화·헌향을 하며 법정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사진=조계종 제공

지관 스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이 타고 있다. 불 타고 있는 집에서 노는 어린이와 같은 처지이므로, 대중 모두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참선하는 스님은 화두를 놓지 말고, 대중은 늘 조심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스님은 평소 무소유를 실천하고, 그 말씀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다 가셨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는 스님의 말씀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숨"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묵념이 서해 백령도에서 근무했던 송광사 도감 영진 스님의 집도에 맞춰 진행됐다.

49재 기간 중 불일암에 안치됐던 법정 스님 유골은 스님이 30여 년 전에 직접 심고 돌보는 후박나무 아래에 안치됐다.

한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날 법정 스님이 변역한 <법구경-진리의 말씀>을 내용으로 추모하는 연주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입장 고수 속 '희망' 찾아

'봉은사 토론회' 4월 30일 열려

거들린 폭로성 발언과 반박을 거듭하며 끝이 보이지 않던 봉은사 문제가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 불교단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소통의 장을 열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 재가연대 등 불교단체 대표자는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총무원 대표로 총부부장 영담 스님·김영일 기획처장·박용규 총무처장 △봉은사 대표로 주지 명진 스님, 부주지 진화 스님, 송진 신도회장 △불교단체에서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 스님·윤남진 NGO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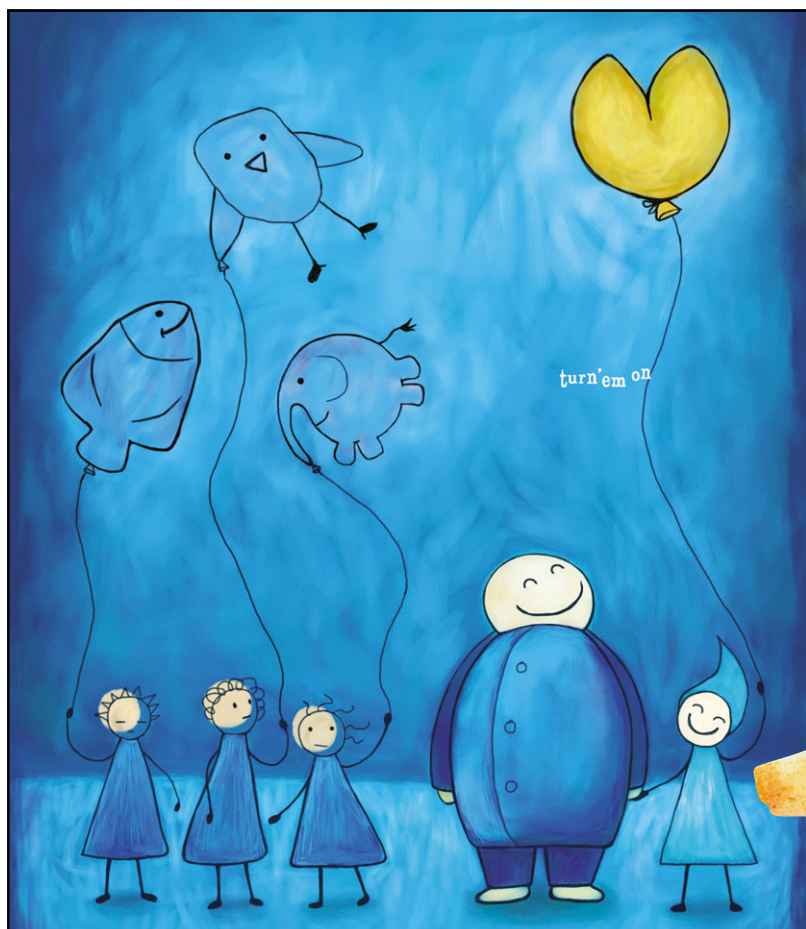
본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진지한 자세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영 로드맵을 가져오고 이를 신도들이 납득한다면 언제든 직영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담 스님은 "집행부가 종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통이 부족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기회를 넓혀야겠다"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토론회에서 명진 스님이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총무원도 봉은사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대단한 인내를 보여 고맙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총무원이 봉은사 운

관련기사 3면 · 조동섭 기자

▶14 선지식-일오 스님 ▶4 인터뷰-송선미 ▶9 현장-지비명상 강좌 ▶16 강의실-최열



What is Buddha Cookie!! 법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입니다. 모두 다른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형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사찰홍보,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500개 이상 주문부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잡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